

사람들이 쓸데없는 것에 돈을 더 쓰긴 하네요.

생각을 확 바꿔 ‘쓸데없음’이라는 것에 대해 잘 생각해보자.

쓸데없음을 다른 말로 ‘잉여’라고 하지. 요즘 잉여라는 단어를 여기저기 붙이던데, 예를 들어 가끔 우울해지면 스스로 잉여인간이라고 자조하기도 하잖아. 세상에 꼭 필요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지.

하지만 잉여인간이라 해서 가만히 있지는 않거든. 쓸모는 없더라도 자기 방식대로 열정과 에너지를 쏟아붓고, 나름의 만족을 느낄 수 있는 행위를 하려 들지. 이걸 ‘잉여짓’이라고 하잖아. 세상엔 실로 온갖 잉여짓이 있어. 길거리 낙서, 그래피티를 하는가 하면 길바닥에 늘어붙은 껌딱지에 그림을 그리는 걸로 유명해진 벤 윌슨Ben Wilson 같은 사람도 있어. 아무 보상 없는 잉여짓이지만 당사자는 행복해.

그 사람뿐이겠어? 성실히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보통 사람들도 잉여짓에 솔깃하고 공감하곤 해. 예능 〈놀면 뭐하니?〉도 어찌 보면 매번 쓸데없는 일에 도전하곤 하잖아. 그런데 재밌어. 왜 재미있을까? 부캐의 캐릭터가 도전을 이겨내는 성장 스토리가 대리만족을 주거든. 〈미스터 빈〉은 또 어떨고? 바보 같은 짓만 하잖아. 그치만 ‘나도 어쩔 땐 저러는데, 뭐’ 이런 생각이 드니까 재밌지.

그 공감 요소, 즉 잉여코드가 오늘날 중요한 시대사조 중 하나야. 잉여코드가 주는 ‘뜻밖의 재미’에 사람들이 반응해.

배달의민족에서 멀쩡히 일 잘하던 이승희와 김규림이라는 두 마케터가 “평생 회사를 위해서만 일할 거야? 내 청춘을 이렇게 보낼 수 없다!” 하고는 사표를 던지고 나왔네. 그렇게 신나게 한 달 놀고 나니 노는 것에 죄책감이 들더라. 구체적 목표는 없더라도, 뭔가 열심히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는군.